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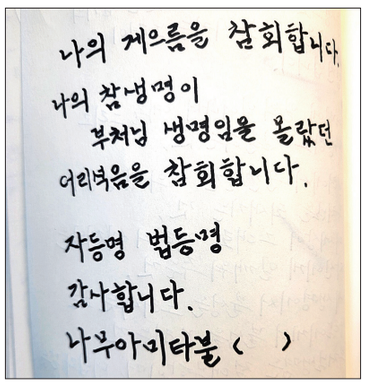
⑬ '좋은 생각이 나도 나무아미타불 나쁜 생각이 나도 나무아미타불'

어렵고 복잡할 땐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아침마다 줌에서 공부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시즌4가 110여 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시즌5가 시작되는 7월까지 잠시 개인 정진 시간을 갖고 있다. 4년째 이어져 오는 공부지만 이번 시즌4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하였기에 각자의 소감을 법공양에 올렸다. 직장동료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법문에 의지해온 도반들의 법공양이 귀해 지면을 통해 회향하고자 한다.

지선(가명) 님은 〈금강경법문〉 책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 금강경을 공부해본 것이었는데, '합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저는 78쪽에 '합장은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생, 부처님은 부처,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겉보기에는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너와 내가 따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두가 한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합장합니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항상 왜 손을 모아 인사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 좋았고, 특히나 한탑 스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나무아미타불', '불이(不二)', '합장'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이대로 답 없이 끝났구나'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과거의 뿌리 깊은 생각과, 불편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해답을 찾은 듯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말 그대로 광명을 찾았죠! 이번 공부가 저로 하여금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믿고 삼귀의해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있는 수계법회가 정말 많이 기다려집니다."

이야기를 듣노라니 그날 공부 이후로 합장 인사할 때 다같이 "합~짱~!"하며 큰 소리를 내는 즐거운 인사법이 생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합장에서 나의 참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찬탄의 마음이 일었다.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나 먼저 바뀌면 모든 것 편안해져

이어서 현아(가명) 님은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나무~!", 나쁜 생각이 나더라도 "나무~!"하면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항복 받아야겠다는 걸 배웠다고 했다. 작은 생각과 무심결에 일으킨 상념 하나에서도 현상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법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허망한 생각이 버려질 때 밝은 부처님생명만이 자신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한 이후로는 어렵고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그냥,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소리내며 잘 '듣는' 염불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윤미(가명) 님도 소감을 전했다. "327쪽에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생명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이웃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뀝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눈에는 중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보면 모두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교화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본래부터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법문이 제게는 이번 시즌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에요. 오로지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만 있을 뿐이기에,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불안함은 사라지고 저절로 안심이 되네요. 오로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제가 무언가 참는 게 보이면, 이제는 아이들이 바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냥 웃게 되요. 이렇게 삶이 편안해질 수가 없네요."

그러자 오랜 세월 운영해온 사업체를 정리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큰 공부를 하고 있는 수희(가명) 님이, 예쁜 손 글씨로 다짐을 적어 모두에게 선사했다. "저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참회합니다. 책임 전가와 근심 걱정, 원망과 미움을 용납하지 않으며 정진하겠습니다. 예불을 놓치지 않고 독경과 염불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⑲ 비극의 단골 메뉴 뇌종양(2)

뇌종양, 두려워 말고 올바른 치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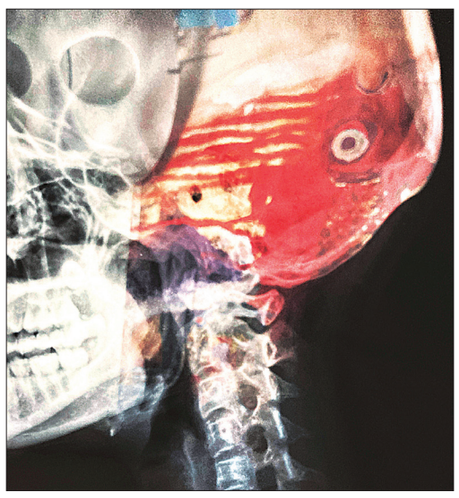
뇌종양 치료: 수술

뇌종양의 주된 치료 방법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요법, 방사선수술 같은 방사선조사요법,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 추적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등이 있으며 의료진은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부 종양은 수술이나 방사선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종양은 수술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뇌종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확히 종양의 종류를 진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치료 방침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수술요법을 통하여 가능한 뇌신경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전 혹은 최대한 종양을 많이 제거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경 교종과 같이 악성도가 높은 경우나 뇌의 중요한 부위에 위치한 경우는 완전 제거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어 추가적으로 방사선조사요법이나 화학요법 등을 함께 시행한다. 최근에는 신경 교종 등의 뇌종양 수술에 특수 편광 필터를 장착한 현미경과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5-ALA HCl)을 이용한 형광 유도 뇌종양 수술 방법을 활용하여 완전 제거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자의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게 종양만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중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자동항법장치(neuronavigation), 수술 중 영상 진단 장비, 수술 중 뇌신경 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뇌종양 치료: 방사선 수술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뇌종양만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많은 첨단 기술과 의료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뇌종양을 포함한 여러 뇌질환 치료법 중 방사선수술은 대표적인 비침습적 치료법이다. 방사선수술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초점은 불이 붙지만 초점 밖의 물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방사선수술 장비를 사용하여 주변 정상 뇌조직에 대해서는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병변에 한 번(single fraction)조사하여 마치 개두술을 하지 않지만 수술하는 것처럼 한 번에 원하는 병변 만을 치료하는 것이 수술과 비슷하다고 하여 방사선수술이라고 한다.



수술로 종양 완전 제거 가능성 높아져
직경 3~4㎝ 미만엔 방사선수술 효과

방사선수술은 비침습적, 치료 즉시 일상생활 복귀 가능, 2~3시간 미만의 짧은 치료 시간, 뇌종양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이 되는 치료법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입원과 회복 기간이 요구되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수술은 매우 매력적이며 효율적인 치료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뇌종양 환자가 방사선수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직경 3~4㎝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변 정상 뇌조직이 받는 방사선의 영향이 불가피하게 많아져 뇌부종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치료 가능한 크기에 제한이 따른다.

방사선수술 장비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ZAP-X 장비는 기존의 방사선수술 장비와 다르게 최초로 정교한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정밀하게 전달하면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는 방사선 노출을 극소화시켰다. 또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마나이프와 달리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치료 장비이며 부분 마취나 침습적인 머리 고정 장치 또한 불필요하다. 치료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두꺼운 콘크리트 지하 벙커에 둘러싸여 있는 기존의 방사선수술 장비와 달리 세계 최초로 자체 방사선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환자가 넓은 유리창을 통해 외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치료 중에는 장비에 있는 창을 통해 함께 의료진이나 방문한 가족이 가까이에서 환자를 볼 수도 있어 치료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뇌종양과 관련된 무서운 소문들이 많지만 소문일 뿐이다. 떠돌아다니는 낭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비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뇌종양 전문가와 치료의 여정을 함께 한다면 뇌종양은 더 이상 두려운 질환이 아닌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환자가 올바른 진단과 자신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뇌종양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양승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